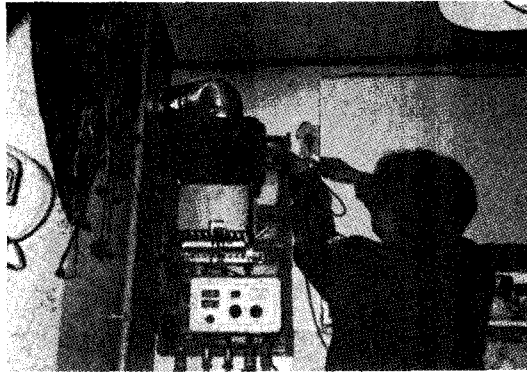


# 가스보일러 안전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국민소득의 증대와 가스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가스난방기 사용도 급속히 늘어나 85년말 약 2만

대에 불과하던 가스보일러 보급대수가 98년 8월말 현재 약 4백 60여만대에 달해 매년 20%이상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가스보일러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7년 한해에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23건으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32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가스보일러 안전사용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의 필수조건이다.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일러 설치불량으로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가스사고의 73.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6.9%를 차지해 가스보일러 안전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설치했는지와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난 96년부터 가스보일러 사용이 줄어드는 비수기에 각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자사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안전점검률이 높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이 사고예방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하절기중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보일러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배기통의 연결부 이완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막힘, 집수리시 보일러의 이동설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가스보일러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가스보일러 사용전에 반드시 배기가스의 누출여부 및 환기상태 등을 가스보일러 회사에 의뢰해 반드시 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본적인 가스사용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겨울철 소홀해지기 쉬운 가스보일러 안전사용요령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스누설 점검은 가스배관 연결부 등을 비눗물로 점검하고 나서 가스보일러의 제

품내부는 제조회사나 도시가스사에 요청해 점검을 받고 가스기기 주위에 가스누설 경보기나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 안전하다.

두번째로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전원코드는 항상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고 (실내 온도조절기의 경우 외출기능을 선택) 보온조치로서 외기에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번째로 배기가스의 누출과 환기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우선 폐가스 누출점검은 연통연결부 등의 틈새를 점검하고 막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전용보일러실의 급·배기구의 막힘상태를 점검하고 보일러실 문을 반듯이 닫고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난방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난방수의 녹찌꺼기나 스케일 등의 누적상태를 점검하고 교환해 줘야 하며 압력계가 부착된 보일러의 경우 압력계가 항상 1~2정도의 수압을 유지하도록 물배출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료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